

한·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

성 한 경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hsung@kiep.go.kr, Tel: 3460-1181)
 이 철 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오 태 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1. 한·터키 FTA 협상 개시와 예상 경제효과
2. 터키의 잠재력
3. 한국과 터키의 경제관계
4. 한·터키 FTA 협상 개시 의의와 시사점



주요 내용

- ▶ 2010년 4월 26일 한국과 터키 양국간의 FTA 1차 협상이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됨.
 - 2008년 6월~2009년 5월 한국 측(KIEP)과 터키 측(대외 무역청)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 증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합의됨.
 -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GDP는 0.01~0.03%, 후생수준은 1억 6,000만~2억 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는 G-20 회원국이자 브릭스(BRICs)를 이은 새로운 신흥시장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로 △ 지정학적 중요성 △ 시장잠재력 △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 ▶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자동차부문의 비중(20% 이상)이 높은 반면에 대터키 수입은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고 최근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곡실류 등의 수입이 급증함.
- 양국간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는 미미한 편임.
- 한국은 터키 시장의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터키는 한국 시장의 농림수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 한·터키 FTA는 EU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신흥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가 있음.
 - 한·터키 FTA 협상이 잠재력 있는 신흥국가와의 FTA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터키 FTA 협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서비스 개방 및 투자안전보장, 에너지, 건설, 교통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관련 산업별 협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한·EU FTA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한·터키 FTA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1. 한·터키 FTA 협상 개시와 예상 경제 효과

가. 한·터키 FTA 협상 개시

■ 2010년 3월 19일 한국과 터키 양국 통상장관이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여, 오는 4월 26~30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임.

- 한국과 터키는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후 2008년 6월~2009년 5월 한국 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터키 측 대외무역청에 의해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짐.

○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증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합의됨.

- 한국은 2010년 2월 19일 한·터키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한·터키 FTA 출범을 결정함.

■ 한·터키 FTA 협상 개시는 한·EU FTA 협상 진전에 따른 터키 측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음.

- 2007년에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약 41억 달러, 수입은 약 3억 달러로 터키 입장에서 극심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이후 무역역조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무역역조 규모는 여전히 큼.

- 1995년 이래로 EU와 관세동맹 하에 있는 터키 입장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는 경우 한국에 대해 상품관세를 일정 부분 철폐해야 하므로, 무역역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실제로 터키는 EU가 FTA를 맺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경우가 많음.

표 1. 터키의 FTA 추진 현황

현황	국가
발효 및 서명	EFTA(1992), EU(1996),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2003), 튀니지(2005), 팔레스타인(2005), 모로코(2006), 시리아(2007), 이집트(2007), 알바니아(2008), 그루지야(2008), ECO*,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2009), 요르단(2009), 리비아(2009)
협상 중	칠레, 페로제도[덴마크령], 레바논, GCC, 인도, MERCOSUR
검토 중	우크라이나,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ASEAN, 중남미 국가 및 ACP

주: 2010년 상반기 현재

*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간 교역상품의 80%를 커버하는 ECOTA(ECO Trade Agreement; 2003년 7월 서명, 미발효), ECO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2015년 완성 목표)를 설립하기 위한 것임. ECO의 대외무역은 2007년 기준 약 5,700억 달러에 달하고, 역내무역은 같은해 기준 330억 달러임.

나. 한·터키 FTA 예상 경제효과

■ GTAP 표준모형을 이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CGЕ)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터키 FTA는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터키 FTA 발효로 양국의 제조업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0.01~0.03%, 후생수준은 1억 6,000만 ~ 2억 8,000만 달러 증가함.

-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정태모형에서 한국의 실질 GDP가 0.01%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1억 6,000만 달러 개선됨.

- 중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자본축적모형에서는 한국의 실질 GDP가 0.03%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2억 8,000만 달러 개선됨.

표 2. 한·터키 FTA 발효 시 예상되는 거시경제효과

(단위: 실질 GDP %, 후생수준변화 억 달러)

구분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실질 GDP	0.01	0.03
후생수준 변화	1.62	2.78

주: 한·터키 FTA 공동연구 결과(한국 측) 일부 인용, 제조업 관세 100% 철폐 시.

■ 한·터키 FTA가 제조업 개방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확대 등을 포괄하고, 터키시장이 가진 잠재력까지 고려한다면 예상되는 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음.

2. 터키의 잠재력

■ 터키는 G-20 회원국이자 브릭스(BRICS)에 이은 새로운 신흥 시장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임.

- 터키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이 된 G-20에서 한국과 더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터키는 G-20 회원국 중 기후변화, DDA 등 한국과 공통 관심 사항이 많은 국가임.

- 브릭스에 집중되었던 국제투자 흐름도 점차 다른 신흥시장으로 다각화되고 있음.¹⁾

○ 2006년 KIEP에서는 수출 유망 20개국을 선정,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평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²⁾

○ 이 연구에서 터키는 성장성과 잠재성 지표는 중상위권, 시장성 지표는 상위권에 위치해 향후 협력 강화가 유망한 국가군에 선정되었음.

■ 터키는 △ 지정학적 중요성 △ 시장잠재력 △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

○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고 있고, 지중해 건너편은 북아프리카이며, 흑해 건너편은 동유럽과 연결됨.

- 터키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2~07년 평균 7%대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인구규모 또한 7,583만 명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³⁾

1) 최근 신흥시장을 ‘Post BRICs’를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시장의 대안으로 TVT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E7, NEXT-11, BEM, VISTA 등이 유망한 신흥시장을 새롭게 정의하는 용어들임.

NEXT-11	터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한국
BEM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란드, 인도, 중국, ASEAN, 한국
VISTA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TVT	터키, 베트남, 태국
E7	터키, 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2) 수출 유망 20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성, 성장성, 협력성, 잠재성 등 크게 네 가지 지표에 대해 누적분포, 최대, 최소 등 다양한 방법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바 있음.

표 3.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9.4	8.4	6.9	4.7	0.9	-6.0
GDP	3,922	4,830	5,309	6,471	7,299	6,207
1인당 GDP	5,420	6,930	7,540	9,090	10,150	8,550

자료: IMF, OECD.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숙련된 노동력 확보 용이 등의 이유로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하는 진출지역 중 하나임.

○ 독일,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U 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터키로 대거 이전시켜왔음.⁴⁾

■ 터키는 자원부국인 중동의 이슬람국가들 및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터키는 이슬람개발도상국8개국회의(D-8) 및 회교권경제협력기구(ECO)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슬람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터키의 건설업체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터키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적, 종교적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3. 한국과 터키의 경제관계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 터키와의 교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왔음.

- 1997년 처음으로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성장세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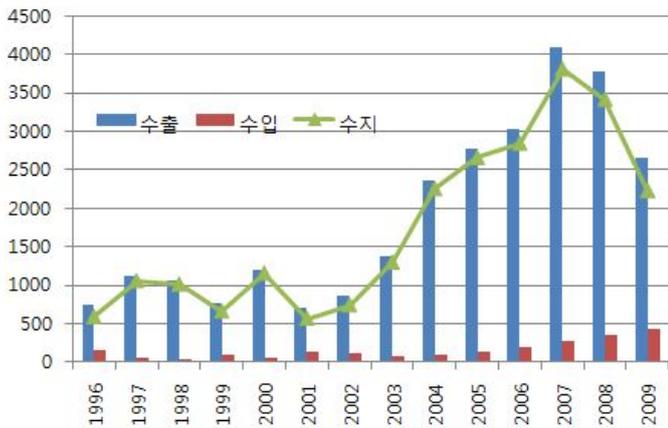
3) 터키는 인구규모가 클 뿐 아니라 현시 선호 생활방식으로 국민들의 소비성향도 높은 편으로 알려짐.

4) 현대자동차, Ford, Renault, Toyota, Fiat, 현대자동차,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 BP, Microsoft, Oracle, IBM 등이 터키에 생산기지를 이전했음.

- 전통적으로 한국은 터키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고, 2007년에는 사상 최고인 약 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o 2000~07년 사이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매년 평균 약 25% 증가해왔음.
-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감소하였고, 대터키 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 내 교역 증가로 인해 수입은 증가하였음.

그림 1. 한·터키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8년 상위 10개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로 대터키 수출은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2008년 한국의 대터키 수출 중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자동차)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했음.

표 4. 한국의 대터키 상위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8년		2009년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77	17.5	290	-23.0
자동차	410	-39.6	288	-29.9
합성수지	310	-2.3	217	-29.8
철강판	289	88.3	215	-25.7
자동차부품	417	44.7	179	-57.1
무선통신기기	195	-55.6	124	-36.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3	-77.8	70	-2.9
플라스틱제품	67	3.3	65	-3.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7	36.8	62	10.3
컴퓨터	35	-42.5	59	68.6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터키 수입도 2002년 이후 일부 다각화되었으나 여전히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 2002년 이후 대터키 수입에서 원유수입에 대한 편중이 줄어들었으나, 상위 10개 수입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6%에 이룸.
- o 2008년 이후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의류 등임.
- 최근 한국의 대터키 자동차부품 투자 증가에 따라 터키에서 제조되는 자동차부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의 역수입이 증가함.

표 5. 한국의 대터키 상위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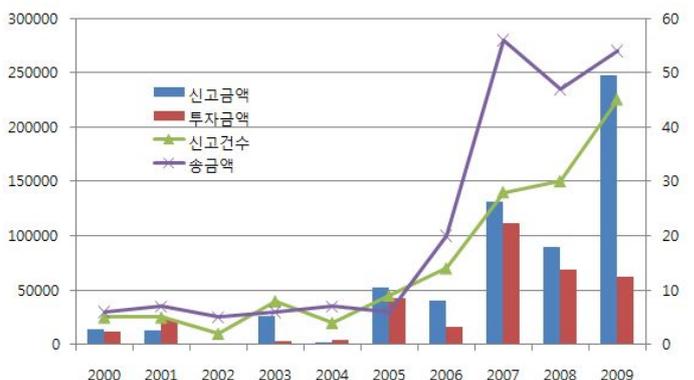
품목	2008년		2009년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원유	362	28.5	434	20.0
자동차부품	19	17.6	82	324.2
석유제품	106	278,031.4	38	-64.6
의류	30	26.7	24	-18.5
선재봉강 및 철근	0	-	19	-
기호식품	14	-3.4	19	32.5
기타 비금속광물	15	28.1	15	-3.8
계측제어분석기	1	29.3	7	605.8
곡실류	3	32.0	6	100.3
무선통신기기	6	390.8	6	-0.1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2009년 3월 말 기준) 중 대터키 직접투자 비중은 약 0.3% 수준(4억 5,500만 달러)으로 전체 45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한국의 대터키 투자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대터키 투자 중 77.2%(약 3억 5,111만 달러)가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o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1억 5,683만 달러로 전체 제조업 투자의 44.7%를 점하고 있고, 담배(25.5%), 1차 금속(9.6%), 화학(9.6%)이 뒤를 이음.
- 그 외 도소매업과 광업에 각각 7,093만 달러(15.6%)와 2,900만 달러(6.4%)가 투자됨.

표 6. 한국의 대터키 업종별 투자

(단위: 천 달러, 전체 비중)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농림어업	1	230	0.1
광업	6	29,000	6.4
제조업	111	351,110	77.2
건설업	3	2,044	0.4
도소매업	16	70,932	15.6
운수업	1	500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	550	0.1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6	554	0.1
총합	149	454,919	100.0

주: 2009년 3월 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터키의 대한국 투자는 736만 5,000달러(2009년 3월 말 기준)로 한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0.005%에 불과함.
- 터키의 대한국 투자 역시 투자금액의 70.5%(519만 달러)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나. 산업별 경쟁력 변화

- 대세계 경쟁력(RCA) 분석에서 한국과 터키는 모두 금속 1차 제품과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금속 1차 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에서 높은 대세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섬유 및 의류, 일반기계 및 장비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기타 공산품, 음식료품 및 담배, 목재 및 종이제품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임.
- 터키는 전통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하여 금속 1차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등에서 높은 대세계 경쟁력을 보임.

- 시장경쟁력(MCA) 분석에서 한국은 터키시장에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등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터키는 한국 시장의 농림수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터키시장에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이외에 섬유 및 의류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터키는 한국시장에서 농림수산물 이외에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제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⁵⁾

- 수출경쟁력(TSI) 분석에서 한국은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품과 가죽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대터키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터키에 대해 금속 1차 제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에서 완전한 수출특화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음식료품 및 담배와 가죽제품에서는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음.

표 7. 한국의 산업별 수출경쟁력 동태 분석

	경쟁력 분석	한국	
		대세계	대터키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기 및 부분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 1차 제품, 자동차, 정밀기계제품
	수출전략제품	정밀기계제품	-
	수출상품화 가능성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품	농림수산물, 광산품
경쟁력 약화	수출경쟁력 약화	섬유 및 의류, 일반기계 및 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목재 및 종이제품, 섬유 및 의류, 비금속광물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전기기기 및 부분품, 기타 운송장비, 기타 공산품
	수입특화로 전환	-	-
	수입특화 심화	농림수산물,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1차제품, 기타공산품	음식료품 및 담배, 가죽제품

주: 2007년 기준임.

5) 단 터키의 대한국 수출규모가 매우 작고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의 MCA는 일정하지 않게 나타남.

4. 한·터키 FTA 협상 개시 의의와 방향

가. 협상 개시 의의

■ 한·터키 FTA는 한국기업들이 터키를 EU 및 아프리카 진출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터키는 EU와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무역 관련 제도나 규정들이 국제표준에 준하게 정비해왔기 때문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EU 시장을 겨냥한 선진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환영받아왔음.

-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에 접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터키를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 한·터키 FTA는 한국이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포스트 브릭스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FTA임.

- 한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이미 FTA를 발효시켰거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한·터키 FTA 개시가 한국의 FTA 대상국을 신흥시장으로 확대시킨 데에 의의가 있음.

나. 협상 추진방향

■ 한·터키 FTA 협상은 잠재성 있는 신흥국과 개시하는 최초협상인 만큼 향후 브릭스 및 포스트 브릭스 국가들과의 FTA 협상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국은 이미 인도와 CEPA를 발효시켰으나, BRICs 국가 중 중국, 러시아, 브라질(MERCOSUR) 등과의 FTA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 있음.

- 비교적 양허수준이 낮았던 한-인도 CEPA의 경우에도 2010년 1월 발효 이후 지난 2개월 간 양국간 교역이 급증했듯이 잠재성이 큰 신흥시장과의 FTA의 경제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음.

- 따라서 신흥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개방, 투자, 경제협력방안, 비관세장벽 등에 포괄적인 주제가 협상에서 논의되고, 높은 수준의 교역자유

화가 관철된다면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앞선 CGE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제조업 관세철폐만을 고려한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협상의 주제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한·터키 FTA 협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방 및 투자 안전보장을 논의하도록 진행되어야 함.

- 한국의 대터키 주력 수출품에 대한 상품관세수준은 약 3.5% 수준이고,⁶⁾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EU에 준하게 관세를 철폐하게 되므로 한·터키 FTA에서 상품관세협상의 중요성은 다른 FTA 협상에 비해 낮음.

- 그러나 터키의 젊은 인구구조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서비스 시장의 잠재성이 높으므로 FTA 협상에서 터키 서비스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시장 확보에 주력해야 함.

- 대터키 투자는 아직 미미한 규모이나 시장잠재성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예상되므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FTA에 포함시켜 한국 기업의 대터키 투자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산업 내 교역이 한국과 터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듯이 대터키 투자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터키는 금융부문의 부실, 정책투명성 결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등 경제적인 불안요인이 있으므로⁷⁾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한·터키 FTA 협상 의제로 에너지, 건설, 교통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산업별 협력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함.

- FTA 협상에서는 교역 및 투자 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음.

- 현재 터키가 추진 중인 발전설비 건립, 중앙아시아 에너지 개발, IT, 통신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

6) 한국의 10대 수출품목(HS 2단위)에 대한 평균 관세율임.

7) 터키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었음.

여할 수 있음.

- 발전설비 건립, 중앙아시아 에너지개발사업 등에 국내 관련 업체나 엔지니어링 기자재 업체 진출이 가능함.
-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언타이드(Untied) 방식의 유상원조 또는 혼합 수출신용(Mixed Export Credit)방식의 ODA 지원 등의 형태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및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그 외에 대터키 투자 확대와 함께 인력 지원, 공동연구개발 등의 방법으로 산업별 협력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음.

■ FTA 협상에서 터키 측은 한국과의 무역역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 입장에서 한국과 터키 간 무역역조가 심각하고, 터키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음.
- 터키의 대한민국 수출유망상품들에 대한 수입 확대를 고려하되, 산업 내 수직적 분업화 구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최근 대터키 투자 증대로 인한 한국과 터키의 산업 내 교역을 활성화가 양국간 무역역조를 일정 부분 개선시킨 바 투자 확대를 통한 무역역조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한·터키 FTA 협상은 현재 추진 중인 한·EU FTA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한·EU FTA 진전이 터키가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한·터키 FTA 협상을 한·EU FTA 서명 및 비준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진행시켜 협상 주도권을 유지해야 함. **KIEP**